

우리 기업, 한류마케팅으로 EU시장 개척

- 한·독 수교 140주년 기념, 「2023 프랑크푸르트 한류박람회(6.29~30)」 개최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는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등과 함께 6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독일 프랑크푸르트 메세에서 「2023 프랑크푸르트 한류박람회」를 개최한다.

한류박람회는 한류마케팅을 통해 우리 중소·중견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우리나라 대표 해외종합 수출박람회다. 올해는 한·독 수교 140주년을 기념하고 우리기업의 유럽시장 진출을 위해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개최한다.

* 독일은 EU 국가 중 한국의 최대 무역국(23년 양국 무역규모 337억 달러, 한-EU 무역의 약 25%)

금번 한류박람회는 국내외 317개社(국내 117개社, 해외바이어 200개社)가 참여하고 한국에 뜨거운 관심을 가진 15,000여명의 한류팬이 참관한다.

B2B 상담회에는 화장품, 식품 등 소비재 기업, 서비스기업, 소재부품장비기업이 참여하여 유럽 바이어들과 수출상담을 진행한다. 이에 더하여 신세계백화점의 신진디자이너 플랫폼 입점기업, 현대홈쇼핑과 중소기업유통센터 입점기업이 참여하고, LH도 에너지효율 및 스마트홈 특화 기업과 함께 참여한다.

B2C 관측관에서는 아마존 독일과 올리브영 온라인몰에 입점한 국내 제품, 독일 현지 바이어가 소싱한 한국 제품 등을 직접 선보인다.

또한 관람객과 해외바이어를 위한 다양한 한류 체험관도 준비되었다.

△박람회 전시 제품을 활용한 K-메이크업쇼와 한식푸드쇼, △한국 관광 및 한복 체험,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홍보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한류박람회 홍보대사로 위촉된 한류스타 스테이씨, 혼성그룹 카드가 개막식 공연, 팬사인회, 기부행사 등 다양한 활동으로 박람회 열기를 고조시킨다.

한류박람회 계기로 KOTRA는 GP매칭(Global Partnering)사업을 통해 미래차 및 반도체 부품 분야 국내 기업과 바이어간 GP상담회와 MOU를 지원하고, 현장에 참여하지 못한 국내기업과 온라인 상담도 진행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유럽에서 10여년 만에 열리는 한류박람회를 통해 한국 기업과 제품의 우수성을 독일과 유럽 시장에 적극 알리고, 한류와 연계하여 소비재와 서비스의 유럽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하겠다” 고 밝혔다.

담당 부서 <총괄>	무역정책관 무역진흥과	책임자	과 장	박재정 (044-203-4030)
		담당자	사무관	장지혜 (044-203-4017)
	문화체육관광부 국제관광과	책임자	과장	이혜림 (044-203-2831)
		담당자	주무관	임상미 (044-203-2837)
	농림축산식품부 농식품수출진흥과	책임자	과장	이용직 (044-201-2171)
		담당자	사무관	엄재희 (044-201-2169)
	국토교통부 국토교통과학기술정책팀	책임자	팀장	김혜진 (044-201-3252)
		담당자	사무관	최민중 (044-201-3264)
	중소벤처기업부 글로벌성장정책과	책임자	과장	김봉덕 (044-204-7500)
		담당자	사무관	이한슬 (044-204-7505)

